

# 대기업 하도급대금 89조…현금결제율 첫 90% 돌파

## ■ 공정위,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 등 현금성 결제도 평균 98.2%  
크래프톤·LG·항공우주·호반건설 등 10일내 지급률 높아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90조원에 유행했다.

하도급업체가 선호하는 현금 결제 비율은 90%를 첫 돌파해 공시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5조원 이상) 소속 1431개 사업자는

하도급대금으로 총 89조2000억원을 지급 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집단 소속 회사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수·지급수단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 집단은 현대자동차로 12조1300억원에 달 했으며, 삼성(9조5800억원), HD현대(6조5400억원), 한화(5조2200억원), LG(4조5900억원), CJ(4조1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현금 결제(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90.6%로 2023년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현금결제비율은 2023년 84.02%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90%를 돌파했다.

전체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

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DN(5.84%), 한국엔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는 현금결제비율이 낮았다.

또 현금성 결제(만기 60일 이하 어음대

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98.2%로 높

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이 정하는 지급 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99.89%로 공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

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LG

(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

설(75.88%), GS(71.62%), DN(71.07%) 등이었다.

60일을 넘겨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1%(993억원)였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

사업자의 비율은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금 미공시 사업자 3곳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에는 정정 공시토록 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라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관련 대금의 비율은 0.11%(993억원)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상승 '5354.49'

코스피가 11일 1% 오른 5350대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94p(0.15%) 내린 5293.75로 출발해 52.80p(1.00%) 오른 5354.49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강보합세를 보이다 장 초반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장중 상승폭을 다시 키워 한때 5374.23까지 올라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86억원 6895억원 순매수하고 개인은 1조7126억원 순매도하며 3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264억원 매수를 나타냈다.

간밤 뉴욕증시는 지난해 12월 미국 소매판매가 예상외로 둔화하자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80p(1.00%) 오른 5354.49에 코스피는 0.33p(0.03%) 내린 1114.870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미

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 증가해 시장 예상치(0.4% 증가)를 밟았다. 연말은 미국의 연중 최대 소비 기간인데도 소비 가 늘지 못했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

시켰다.

엔비디아(-0.79%) 등이 내리면서 필리핀피아반도체지수는 0.68% 하락했다.

이날 국내 증시 역시 부진한 미국 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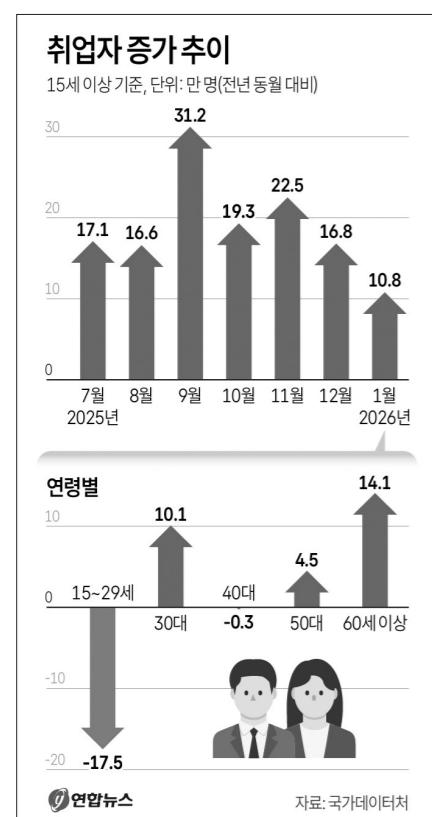
판매 지표와 기술주 약세에 장 초반 하방

압력을 받았다.

다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 지난달 광주 고용률·실업률 동반 상승



전년비 0.5%p·0.6%p ↑…전남은 고용지표 전반 악화

지난달 광주지역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실업률도 함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취업자가 1만명 이상 감소하고 실업자도 늘며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11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고용률은 59.9%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취업자는 76만 3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

반면 실업자는 3만7000명으로 5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6%로 0.6%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8000명, 9.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00명, 1.1%)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제조업(5000명, -4.9%), 도소매·숙박·음식점업(5000명, -3.1%), 농림어업(1000명, -5.3%)은 감소했다.

(1만5000명, 20.5%), 제조업(9000명, 8.0%)에서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8000명, -9.3%), 농림어업(1만2000명, -6.3%), 건설업(5000명, -6.6%)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7000명(4.5%)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1만6000명(-10.0%). 일용근로자는 5000명(-13.2%)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가 4000명(5.2%) 늘었고, 자영업자는 1만4000명(-4.6%) 줄었다.

전국적으로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8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보다 축소되며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연령별로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5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p 하락해, 1월 기준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40대에서도 취업자가 3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

## 농관원 전남지원, 원산지 표시 위반 40건 적발

### 온라인몰서 '나주배' 허위 표시도 단속

농협, 설 앞두고 가축질병 긴급 방역 가동  
방역장비 1000대 투입·700억 지원 등 현장 대응 강화

농협중앙회는 11일 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본부와 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 대책 회성회의'를 열고,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기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설 연휴 기간 유동인구 증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주요 가축질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가능한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중심으로 핵심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유동인구 증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주요 가축질병 확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지역본부와 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 대책 회성회의'를 열고,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기동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결과, 총 40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성수품 전반이었다.

단속 결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훈동하게 표시한 '거짓표시' 32건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8건 등 총 4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짓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미표시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농식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낭도장터 등 자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통신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통야과, 배추김치, 떡, 나주배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6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유명 지역 특산품의 인지도를 이용해 타 지역산 배를 '나주배'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했으며, 전남도·관세청·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합동 단속도 실시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전남도와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자재를 지역에서 우선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자재 활용을 적극 장려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농협 전남본부는 최대 농자재 유통·공급 기관으로서 지역제품 소비 확산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본부는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관내 시·군·지부 및 농축협과 협력해 △전남도내 생산 친환경농자재 흙보 리플릿 제작·배포

△농협 자체센터 및 읍·면 농협을 통한 흙보를 비자 △조합원 대상 교육·회의 시 지역제품 이용 흙보를 배포 등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영농 시기별로 친환경농자재 생산단계와 연계한 현장 흙보와 설명회를 실시해 농업인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지역제품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자재 지역제품 구매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내 농장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에서 사용하는 친환경농업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전남도-농협, 농자재 지역제품 우선구매

### 지역경제 활성화·지속기능 농업 기반 마련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전남도와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자재를 지역에서 우선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자재 활용을 적극 장려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통한 흙보를 비자 △조합원 대상 교육·회의 시 지역제품 이용 흙보를 배포 등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자재를 지역에서 우선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자재 활용을 적극 장려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통한 흙보를 비자 △조합원 대상 교육·회의 시 지역제품 이용 흙보를 배포 등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영농 시기